

2027학년도 EGOIST 모의평가 1회 해설

〈필적확인란 출처〉
조금 씹살한 오렌지처럼
뒤에 남은 애뜻함
- Spyair, 「Orange」 -

2027학년도 EGOIST 모의평가 1회 빠른답지									
1	②	2	⑤	3	⑤	4	⑤	5	④
6	③	7	④	8	③	9	②	10	④
11	①	12	③	13	③	14	④	15	②
16	⑤	17	①	18	③	19	⑤	20	⑤
21	①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③	28	⑤	29	③	30	③
31	③	32	②	33	④	34	⑤		
화법과 작문								35	①
36	②	37	④	38	④	39	⑤	40	②
41	③	42	①	43	⑤	44	③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③	37	③	38	③	39	⑤	40	⑤
41	③	42	④	43	③	44	③	45	④

[비문학]

[1~3] 영재 아동의 독서 교육

1. ② #일상언어 #존재여부

[정답 해설]

- ② 지문 1문단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영재 교육은 불평등의 상징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이 재고되었다. 이는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함의한다. 몰랐다면 부정적 인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성을 재정의했다. 재정의했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국가방위교육법」은 영재성에 대한 다른 연구나 관점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부터 해당 법안에는 영재 아동의 선별과 특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랜줄리는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력, 과제집착력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영재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과제 집착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아동은 렌줄리의 입장에서 영재가 아닐 것이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영재성은 과거에는 단순한 IQ로 측정되었으나, 영재적 행동의 관찰 기반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성이다.

2. ⑤ #강화/약화 #사실/가치 #논의영역

[정답 해설]

- ⑤ [A]는 모든 영재 아동에 있어서 고차원의 문해력과 고도의 추론적 사고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선지의 내용은 결국 모든 영재 아동이 언어적 재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만 두각을 드러내고 인지 능력 내에서 비대칭적 발달을 보이는 아동을 특수 이중아(twice-exceptional, 2e)라고 부른다.

[오답 해설]

- ② 이 내용은 [A]와는 무관한 비판이다. [A]는 현재의 영재 아동 판별 시스템이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아울러,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오히려 영재 아동에게 적절한 학습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학업에서 부진을 겪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이 내용은 [A]와는 무관한 비판이다. 오히려 앞 부분적으로는 [A]의 설득력을 강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A]는 영재 아동에 있어서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추론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선지의 뒷부분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③ 이는 [A]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A]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 ④ 이 내용은 [A]와는 무관한 비판이다. [A]는 영재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학습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의 재능이 계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한 가치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즉, 이 선지의 내용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선지이다. 2012 MEET 언어추론 기출과 2023학년도 6평 기출 선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또, [A]로부터 특별 교육이나 추가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추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격리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전제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면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이다.

3. 정답 ⑤ #보충도식

[정답 해설]

- ⑤ 난이도가 있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적절한 교사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 ① 학교에서 제시되는 읽기 과제는 A의 '근접 발달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아동은 '글을 읽어 발음을 떠올린 후 그 의미를 이해'하므로, 구어 발달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A는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가능하다. <보기>에 따르면 A는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A는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가 가능하다. <보기>에 따르면 A는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4~7] 계급배반투표를 설명하는 이론

4. ⑤ #생성/소멸 #존재

[정답 해설]

- ⑤ 본문에 제시된 내용은 계급 투표 현상이 2차대전 이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참고로 학술적으로 계급 투표 현상 자체는 1920년대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계급은 사회 구성원을 범주화하는 개념이다. 또, 2문단에 따르면 계급 투표 과정에서 경제적 요소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급은 경제적 요소에 의해 나누어짐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참여 여부, 경제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이는 정치적 의사 결정의 차이로 이어진다.
- ③ 1문단의 계급 투표의 내용이 사회적 계급에 따라 정치적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2문단을 통해 각 계급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계급은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유럽 국가들에

세 불균등한 자원 배분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④ #결정 #인과추론

[정답 해설]

④ 지문의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잉글하트는 저소득층 유권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5문단에 따르면 잉글하트는 유권자를 여전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인정하므로, 2문단에 제시된 이익 이론의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이 손익계산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결정한다'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2026 LEET 언어이해 기출선지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오답 해설]

- ①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이 계급적으로 대변하는 대상이 뒤바뀌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고소득층을 대변하고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대변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문의 4문단 '미국의 양대 정당이 경제적 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문학의 '역전'을 언급한 선지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출제된 선지이다. 추가로, 만약 문화적 측면에 집중하여 역전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이 선지의 진술은 ㉠의 결과이지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이는 잉글하트의 입장이 아니다. 바텔스의 입장에 가깝다.
- ③ 이는 잉글하트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잉글하트는 프랭크가 저소득층 유권자들을 비합리적이고 엘리트에 선동당하는 존재라고 설명한 것을 비판했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탈물질주의화되지 않는다.

6. ③ #강화약화 #필요조건 #충분조건

[정답 해설]

③ α 는 잉글하트의 입장과 상충한다. 잉글하트에 따르면 탈물질주의의 정의는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생존과의 직접 연결 여부'이고, 경제적인 것은 그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α 선지는 경제적 손

실이 탈물질주의의 필요조건이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γ 은 조스트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3문단에 따르면 조스트는 저소득층의 우경화는 심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참고로, 이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프랭크는 미국 민주당이 '고소득 엘리트의 정당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다. 또, 5문단에 따르면 잉글하트는 '노동자들은 고소득 정치 엘리트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역으로 프랭크는 저소득층이 기만당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함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프랭크의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의 변화는 저소득층 유권자를 오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음모인 반면, 잉글하트의 입장에서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δ 은 프랭크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잉글하트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6문단 상단에 따르면 피오리나는 정권 선택을 중요한 요소로 설명한다.
- ⑤ 바텔스는 모든 계급배반적 투표행위에 대한 설명이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계급투표 이론을 옹호한다. 한편, 조스트는 저소득층 유권자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프랭크는 저소득층 유권자를 정치 엘리트에 기만당하는 존재라고 본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7. ④ #변화 #매핑 #함수

[정답 해설]

④ <보기>의 조건에 따르면 t 년부터 $t+2$ 년까지 선거구 (다)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해져갔다. 하지만 오히려 C당이 역전하여 승리한 것은, 피오리나의 정권 선택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이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언급된 U국은 영국이고, C당은 보수당(Conservative), L당은 노동당(Labour), D당은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이다. t 년도 총선 결과는 2017 총선이고, 당시 보수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여 보수계 군소야당의 각외협력을 통해 집권했다. (다) 선거구는 볼소버라는 지역구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실제로 매우 가난한 지역구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t 년도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되었다. 조스트의 입장에서 저소득층은 혼란과 불안정성을 회피하려 하므로, 보수 성향의 여당인 보수당에 표를 던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 ② t년에 비해 t+2년에 노동당의 계급배반적 성향이 더 잘 나타났음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 선거구 (나)와 선거구 (다)의 사례를 참조하자. 참고로, 본래 선거 결과에는 브렉시트 이슈가 강하게 작용했었지만, 문항에서는 출제 포인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소 단순화하여 각색했다. 실제로 2019 총선 당시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총리 보리스 존슨에게 이슈를 선점당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 ③ D당은 사회문화적 의제에 집중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렸음은 잉글하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부유한 자들은 생존보다는 사회문화적 이슈에 집중한다는 것이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의 핵심이다. 이 틀로 노동당의 승리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참고로, (가) 선거구는 실제 이즐링턴 북구 (Islington North)의 선거 결과인데, 2017 총선 및 2019 총선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제러미 코빈 의원이 11선을 한 지역구이다. 제러미 코빈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 plan) 선언 이후 가장 좌익 성향이 강했던 당수로 평가되곤 한다. 여기서부터는 tmi인데, 2025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가 정권교체를 이루는 동안, 전직 당수 제러미 코빈은 오히려 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무소속으로 지역구 수선에 성공했다. 정치적 모델 구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된다.
- ⑤ 바텔스는 여전히 계급기반 투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계급 배반적인 결과는 통계적 착각일 뿐이다.

[8~11] 종의 합성

8. ③ #내용일치 #양상

[정답 해설]

- ③ 4문단에 따르면 트랜스포존은 스스로 그 위치를 바꾸며 생물체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 따르면 DCL은 트랜스포존 유래 RNA를 분해한다고 했다. 절단과 합성은 구분해야 한다. 2017 수능 <반추위 미생물> 보기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선지이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배수성 돌연변이가 발생한 생식 세포의 염색체 개수는 짝을 지어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짝수개일 것이다. 참고로, 배수성 돌연변이가 꼭 2n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3n과 같은 형태도 가능하긴 하다. 이 경우에도 '홀수일 수 있다.'라고 진술해야지 '홀수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에른스트 마이어의 고전적 정의가 통용되던 시기에도 잡종의 존재 자체는 알려져 있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생식세포 분열이 성공하려면 상동염색체가 두 개씩 짝을 지어 존재해야 한다.

9. ② #양상 #정의 #조건문 #인과

[정답 해설]

- ② 이질배수체 내에서 트랜스포존의 위치가 이동했다면 원하지 않았거나 예상되지 않았던 형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항상 발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생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에른스트의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종의 생물끼리는 자발적인 교배를 해야 한다. 교배 현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세균이나 무성생식 생물의 경우 에른스트의 정의에 어긋난다.
- ③ 진화는 자연 선택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 선택이 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우장춘의 연구가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했다는 부분의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④ "#이그저는앞을본다"를 기억하자. '이러한' 이질배수체라고 했으므로, 이질배수체의 정의는 서로 다른 종인 부모로부터 각각 2배성 돌연변이가 발생한 생식세포를 물려받아 형성된 자손을 의미한다.
- ⑤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다.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가 가능하다는 조건만으로는 에른스트가 제시한 '자발적 교배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그렇게 태어난 자손이 번식 능력이 없으므로 '잡종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10. 정답 ④ #강화약화 #논의영역 #허수아비

[정답 해설]

④ (나)의 어느 부분이 siRNA 미스매치 가설을 약화하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발현된 트랜스포존과 siRNA의 염기 서열만 관련되어 있고, 메틸화 진행 여부는 미스매치 가설의 내용과 무관하다.

[오답 해설]

① siRNA 미스매치 가설은 '트랜스포존의 억제에 siRNA가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므로, '트랜스포존의 억제'와 'siRNA의 염기서열 일치'는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의 상황은 siRNA 미스매치 가설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한편,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과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 모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특정 트랜스포존의 활성화만 높아졌다는 (가)의 조건은 두 가설의 설득력을 약화한다.

② (나)는 발현된 트랜스포존에 대응되는 siRNA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필요충분조건을 말하는 siRNA 미스매치 가설의 설득력을 약화한다. 한편, 크로마틴 구조 릴렉세이션 가설의 입장에서 siRNA와 트랜스포존의 염기서열 일치는 억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고, 오히려 메틸화에 대한 주장의 지지 근거가 제시된 것이므로, 설득력은 강화된다.

③ (다)는 이질배수체 형성 상황에서 화학양론적 희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의 설득력은 약화한다. 한편, 나머지 두 이론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강화/약화를 판단할 수 없어 중립이다.

⑤ 화학양론적 희석 가설이 논의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이질배수체 형성 상황이다. 본문 조건에 따르면, 'siRNA가 트랜스포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기서열이 일치해야 한다.'는 참이지만, 그 역까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질배수체 형성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의 설정대로라면 논의영역에서 벗어나므로, 가설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게 된다.

11. ① #범주

[정답 해설]

① 시기와 동일한 뜻이다.

[오답 해설]

② 본문의 '여겨지던'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된 것이므로, 증명과는 차이가 있다.

③ 본문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변형'은 있던 것이 바뀌는 것이다.

④ '배증'은 '곱절로 늘어나다'라는 뜻이다. 꼭 증가가 배증일 필요는 없다.

⑤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12~17] 전생-환생 관념의 발전과 변화

12. ③ #범주 #내/외

[정답 해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최초로 전생과 환생 관념이 체계화된 인도 문명은 동양에 속한다. 이후 그 개념은 동양의 내부에서 확장되었다. 따라서 동양으로 '전래'되었다는 선지 표현은 부적절하다. 참고로 '전래'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옴'과 '외국에서 전하여 들어옴'이라는 두 뜻이 있는데, 문장 맥락상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다양한 종교적 경전이 인용되었다. 경전들은 비유적 표현이나 은유, 암시가 많이 사용되므로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가)에는 '전생과 환생에 대한 개념'이라는 철학적 주제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 그것이 '단순한 영혼의 재생'과 '체계화된 도덕적 인과응보 시스템'의 이항대립적 구조로 분기되고 있다.

④ (나)에 오리게네스주의와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입장 차이가 제시되었고, 이는 서양 지성사에서 전생과 환생 개념이 퇴장하게 되는 영향을 주었다고 제시되었다.

⑤ (나)에 언급된 신지학, 영지주의, 심령주의는 오컬티즘의 종류들이다. (나)의 상단과 하단의 글 구조를 참고하면 좋다.

13. ③ #양/질 #지속/단절

[정답 해설]

③ 본문에 따르면, 윤회나 재생에 관한 관념은 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이후 '공식적'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이것이 윤회 담론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대에 이르러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자체

는 지속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실제로도 윤희 담론은 지하에서 지속되었다. 11~13세기 이어진 카타리파의 이단이나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의 조르다노 브루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있어야확장되지

[오답 해설]

- ① 본문에 따르면, 15개조의 파문 목록과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칙령은 오리게네스주의에 대한 물이해이다. 즉,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해진 이론의 왜곡이므로, 오리게네스주의가 윤희나 전생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역사학자들은 오리게네스주의의 주장을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② 다르마 힌두 철학의 관점에서 현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윤희' 자체가 '고통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된 경전 역시 '아트만과 브라만이 동등함을 깨닫는 것'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지의 진술과 달리,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는 것은 해탈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참고로, 약간의 배경지식을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카르마는 유한한 것의 범주인데 해탈은 무한한 것의 범주이다. 아무리 유한한 행위를 많이 해도, 무한한 자유로는 도달할 수 없으며, 무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지문에 따르면 영지주의는 영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즉,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되살아난 영혼의 영적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동일한 인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동시에 영지주의는 드루즈교의 '동일 공동체 내 환생' 개념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공동체 속으로 환생'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불가능이 아님을 의미한다.
- ⑤ 다르마 철학의 전래는 일본의 전생과 환생 관념의 염세적 성격을 약화시켰다. 인용된 「다도신공사 가람연기」에서 현세를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14. ④ #비교

[정답 해설]

- ④ <보기>의 카미와 다르마 힌두교 철학은 모두 깨달음을 얻기를 추구한다. 참고로, 이 선지의 진술은 학술적으로도 참이다. 1980년대 비판불교

학파를 대표하는 마츠모토 시로 교수는 일본에 자리잡은 불교 문화는 사실상 힌두교 문화에 이름만 불교식으로 갈아끼운 혼합 종교라고 비평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① 「영의 진주」에서 묘사하는 카미는 부처이지만, <보기>에서 묘사되는 카미는 아직 불법을 깨닫지 못한 자이다.
- ② <보기>의 카미는 산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서술된 내용을 보면 고대 신토의 관점과 다른 면이 발견된다. 먼저, <보기>에 따르면 '나'를 카미라고 하는데, [A]에 따르면 고대 신토의 카미는 복합체적 존재이다. 또, [A]에 언급된 고대 신토의 카미가 정화를 거친 이후인 것과 달리, <보기>의 카미는 불도를 닦겠다고 이야기한다. 참고로, <보기>의 자료는 일본의 고대 신토가 현대적 불교 관념으로 변화하던 과도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보기>에 나타난 카미와 인간 세상의 관계는 카미가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B]의 라프카디오 한이 언급한 카미는 인간의 통치자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다.
- ⑤ <보기>와 라프카디오 한의 주장 모두 생과 사의 불간섭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하지 않는다.

15. ② #집합 #강화/약화

[정답 해설]

- ② 「서약의 서」이 상정하는 죽은 자가 환생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은 동일 공동체 내부에 한정된다. 한편, 신지학은 영적으로 상위인 인간으로 진화한다고 했을 뿐, 그것은 특정 공동체의 집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 따르면 신지학은 인류 공동체적 관점을 지지한다고 했다. 언어이해의 진정한 주제는 '집합'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오답 해설]

- ① 「바가바드 기타」와 19세기 말 신지학 모두 영혼과 육체가 별도로 존재함을 상정한다. 신지학의 입장은 (나)의 3문단 영지주의와의 공통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영적으로 진화된 인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별개로서의 영혼의 연속적 존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우파니샤드」에 제시된 현세관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한편, 이는 「마하지관」의 입장과 명시적으

로 충돌한다. 또,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신지학은 힌두 철학의 염세성을 서구식 인본주의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 ④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이후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 한편, 「지혜의 서신들」의 입장대로라면 사람은 ‘즉시’ 환생하며,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영지주의 역시 정적인 사후세계를 부정했다.
- ⑤ 이 선지의 진술은 (나)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라프카디오 현의 입장에서부터 추측될 수 있다. 「영의 진주」에는 카미와 인간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명백히 묘사되어 있다.

16. ⑤ #강화/약화 #이항대립 #일상언어

[정답 해설]

- ⑤ <보기>에 나타난 이성적이지 않은 주체가 환생의 결과 비극을 겪게 된다는 내용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영적 진보주의나 영적 진화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 나타난 윤회 및 환생의 가능성은, 근대 오컬티즘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한 내용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역사적 알리바이’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② 이 선지의 언급은 사실 5번 선지의 ‘이성적이지 않은 주체의 비극’이다. 이는 심령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친근하고 긍정적인’ 영혼의 모습과 상충하므로, 그들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일상언어적 이항대립을 묻는 선지이다. 참고로, 플라톤은 ‘국가’의 인용 부분에서 철학의 중요성과 단순히 ‘착한 삶’의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 ③ <보기>에 나타난 오르페우스나 아이아스의 선택은 인간이 아닌 동물로의 윤회 및 환생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인간으로의 환생을 주장하던 신지학자들의 주장과 상충한다.
- ④ <보기>에는 윤회의 최종 목적지가 이상적 세계로의 복귀라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실제로는 맞는 내용이긴 하다.

17. ① #범주

[정답 해설]

- ① ㉠와 야기(惹起)하는은 맥락상 너무나도 당연히 바꿔쓸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는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재편(再編)은 이후에도 다른 형태일지언정 이어짐을 의미한다.
- ③ ㉢는 객체의 변화를 함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속(結束)은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가 추가된다.
- ④ ㉣는 개연적으로 그러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반면, 귀결(歸結)은 필연적인 논리성을 의미한다.
- ⑤ ㉤는 새롭게 생각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반면, 답습(踏襲)은 기존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이다.

[문학]

[18~21] 이옥, 「심생전」

18. ③ #공간범주

[정답 해설]

- ③ ㉢는 여인이 있는 방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인 ‘창벽’의 밖이다. 즉, 생활 공간의 경계 바로 밖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는 여인이 부모님을 부르러 간 공간이지, 부모님의 부름을 받은 공간이 아니다.
- ② ㉡는 심생이 삼십 일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온 곳은 맞으나, 이곳에 머물렀다고는 볼 수 없다.
- ④ ㉣는 심생이 떠난 곳은 맞으나, 떠나기 전부터 집의 압박이 있었으므로, 예상치 못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 ⑤ 심생은 ㉤에서 여인의 유서를 받고 과거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19. ⑤ #논증형식

[정답 해설]

- 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데릴사위로 심생을 맞으려 한다.

[오답 해설]

- ① 심생이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심생의 부모님이다.
- ② 심생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덤덤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여인이 심생과 마주친 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또,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한 것 역시 우연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④ 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두 대안 사이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적은 없다.

20. ⑤ #의사소통

[정답 해설]

- ⑤ ㉠은 상대방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풍류 소년’은 본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일 뿐,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에는 ‘천첩’이라는 본인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② ㉡은 ㉠과 달리 담화의 발신과 송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또, ㉠은 제3자를 통해 담화가 전달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대화의 상대방이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의 내용은 심생이 모르던 내용이다. 한편, ㉡ 역시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느껴졌다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1. ① #행위설명

[정답 해설]

- ①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욕망 간의 충돌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습보다 개인의 욕망이 우선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② 본문의 이야기는 스승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가 기록한 것이다.
- ③ 심생이 ‘붓을 던지’는 행위는 여인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개인적 욕망을 사회적 관습이 직접 좌절시킨 부분은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로, 이 내용은 생략된 부분에 나오기는 한다.
- ④ 심생이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음에도 ‘일찍 죽’은 것과 사회적 관습을 충실히 따른 것과 무관하고, 작중 심생이 사회적 관습을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도 없다.
- ⑤ 여인이 ‘심생을 부르’는 행위는 심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심생은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므로, 능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여인이 더 능동적이다.

[22~26] (가) 정지용, 「도굴」 / (나) 이상, 「오감도 시제11호」 / (다) 유한준, 「석농화원 발」

22. ⑤ #문학이론

[정답 해설]

- ⑤ (가)는 ‘산삼’과 같은 시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고, (나)는 시어 ‘사기컵’과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역설적 표현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에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에 나타나는 현실이 부정적인지는 다소 애매하나, 확실히 관조적이지 않다.
- ④ (가)에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② #열거 #인과

[정답 해설]

- ② 붓이나 종이의 색깔만 가지고 그림의 형상이나 배치를 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은 열거되고 있을 뿐, 인과 관계에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그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전부 충분하지 않다는 진술뿐이다.
- ③ 그림의 참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필요조건은 처음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진술뿐이었다.
- ④ ‘오직 그림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는 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다.
- ⑤ [D]와 [E]의 내용을 종합하면 앎→사랑→봄→소장의 조건문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24. ④ #심상 #보기

[정답 해설]

- ④ (나)의 ‘난데없는팔’이 ‘내팔’에서부터 ‘접목처럼똥히’는 것은 독자가 일반적으로 감각하기 어려운 시각적 및 촉각적 경험이다. 2026 임용고시 기출을 참고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는 화약의 불빛이 ‘당홍 물감’과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나)에서는 총성 역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다. 다람쥐가 도망가는 것은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직접적’이지 않다.
- ③ (나)의 ‘내팔’이 ‘사기컵’을 ‘마룻바닥에메어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팔에서 돌은 팔’이 던지는 것이다.
- ⑤ (나)의 ‘내해골’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물일 수 있다. 다만 ‘해골’을 집어던지려고 의도한 것은 확실히 아니다. 집어던지는 물건을 ‘사기컵’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② #속성

[정답 해설]

- ② 화자는 어느새 ㉠이 깨졌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화자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한편, 김광국은 ㉡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주변과 의사소통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조금 애매하다. ㉡은 주변과 단절적이지 않다.
- ③ ㉠은 화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는 애매하다. ㉡은 확실히 김광국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대상이다.
- ④ ㉠과 ㉡ 모두 전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화자는 ㉠과 사기컵을 혼동하고 있다. 한편, 김광국은 ㉡에 대해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26. ③ #정서 #인과

[정답 해설]

- ③ 엽초는 심캐기늪은이가 물고 잠에 들었을 뿐, 그것의 매개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는다. 설사 매개적이라 하더라도, 시의 맥락상 희망을 환기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심캐기늪은이’의 꿈 속에서 ‘산삼’은 ‘후취감어리’처럼 ‘당홍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후취감어리의 뜻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
- ② ‘심캐기늪은이’가 마주치는 ‘도라지’, ‘더덕’, ‘취쌔’은 산삼이 아니다. 이는 심캐기늪은이가 담배를 물고 잠에 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 ④ ‘당홍’색은 ‘심캐기늪은이’의 꿈 속에서는 ‘치마’로

나타나고, 꿈 밖에서는 ‘화약불’로 나타난다.

- ⑤ ‘심캐기늪은이’가 ‘산삼’을 위해 오랜 기간 기도해서 정성을 들여 왔다는 서술은 ‘심캐기늪은이’가 ‘산삼’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7~30] (가) 정철, 「관동별곡」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송순, 「십 년을 경영하여」

27. ③ #일상언어

[정답 해설]

- ③ (다)는 청자가 설정되지 않은 화자의 독백이고, (가)에는 화자와 ‘꿈에서 한 사람’ 간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대답이 없어도 대화일 수 있다.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개념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다)에는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지 않다. 화자는 어떤 대상도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 ④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가 드러난다는 내용은 거의 무적의 선지라고 볼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내는건 거의 불가능하다.
- ⑤ (다)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8. ⑤ #인식 #인지 #일상언어

[정답 해설]

- ⑤ 이 부분은 화자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꿈이라는 환상적 공간에서 관동이라는 현실적 공간으로 시점이 이동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화자가 바라본 것은 여산이 아니다. ‘A와 같은’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이다. A와 같다는 것은 A는 아니라는 것이다.
- ② ‘각각’은 맥락상 개심대에는 맑음이라는 속성을, 중향성에는 깨끗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의 화자는 그러한 구분을 만들고 있지 않다.
- ③ ‘자연의 이치대로’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출제자(인 나)의 의도는 ‘자연의 이치’와 ‘조물주의 유행함’은 다르다는 것이긴 한데, 이걸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역접으로 진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 ④ 초월적 존재는 화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깨닫고 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문의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29. ③ #시제

[정답 해설]

- ③ ㉓는 화자가 꿈 속에 나타난 초월적 존재로부터 전달받은 술이다. 하지만 ㉒는 화자가 직접 노력하여 얻어낸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㉓는 화자가 타인에게 시도하라고 권유하리라 마음먹은 대상일 뿐, 이 시점에서 권유하라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 2024 수능 화암구곡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선지이다.
- ② ㉓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다. 억만 창생을 전부 취하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㉒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④ ㉓를 화자의 관념 속에 있는 대상으로 볼지는 애매하다. 확실한 것은 ㉒는 화자가 실제로 얻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애매한 부분은 넘어가고 확실한 것 위주로 선지판단해주면 된다.
- ⑤ ㉒의 경우 화자가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지문 내 표현이 짧아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대신 ㉓는 확실하게 대화 맥락을 통해 예상했던 대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0. ③ #인식론적도식 #의사소통 #패러프레이징

[정답 해설]

- ③ (나)의 화자는 '저 장수'가 복잡하게 외치고 있다고 반응한다. 이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이 된 선지이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일 것임 역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굽힐 줄을 모르'는 것은 망고대와 혈망봉의 특징이지, 자신의 특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② (나)의 화자와 '저 장수'는 '동난이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동난이지를 서술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 ④ '청풍'과 '명월'은 중첩되지 않는다. 각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항대립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 ⑤ (다)의 화자는 '청산'은 '들일 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31~34]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31. ③ #문학이론

[정답 해설]

- ③ [C]는 일관되게 내적 독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인공의 혼란이나 괴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해설]

- ① [A]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지 않았다.
- ② [B]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철저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와 [B]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참고로 선지 표현은 2017 LEET 기출 표현이다.
- ⑤ [B]에 색채어나 색채적 이미지가 나타난 것은 맞으나,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지 표현은 2011 PEET 예비시험 기출 표현이다.

32. ② #의사소통

[정답 해설]

- ② 지문에 따르면 '호리키'는 '나는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나'는 속으로 '죽인게 아니야'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호리키'는 '나'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시문의 최하단부에 '나'가 '호리키'에게 다소 신경질적인 화를 내는 장면이 있다.
- ③ 제시된 대화에서 단어를 선제시하는 주체는 항상 '나'이다. 번갈아가며 논의할 단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 ④ '호리키'는 '나'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랫줄에 묶이는 경험'이라거나, '여자를 죽게 하거나'와 같은 부분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 ⑤ 서로가 제시한 반의어에 대해 그것은 오히려 유

의어라고 말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한 단어가 유의어라는 비판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33. ④ #역할 #역전 #인과

[정답 해설]

④ 지문에 제시된 '아무리 해도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토론을 하질 못한다' 부분에서 '나'의 평소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취기가 더해졌음에도 '나'는 적극적인 반박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물건인 것은 맞다. 참고로, 작중 주인공은 과거 동반 자살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의 '역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 ② ㉡은 '나'의 시야에 들어온 물건이 아니다. 네온 사인의 빛이 비춘 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뿐이다.
- ③ ㉢은 '나'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나'는 직접 진술한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장면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은 배가 고플 '나'와 '호리키'가 먹으려 한다고 제시되지 않았다. 그저 직후에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할 뿐이다. 아울러, '꿀'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 주인공의 분노의 트리거가 되는지는 다소 애매하다. 참고로, 원문 일본어에서는 말장난이 성립한다. '죄'가 일본어로 '츠미'인데, '꿀'은 일본어로 '미츠'라고 한다.

34. ⑤ #매핑 #변화 #있어야원인이지

[정답 해설]

⑤ 주인공에 있어서 절대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리라는 의식 자체는 '죄의 반의어'에 대한 대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의 죄의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호리키와의 관계 정도에 대한 생각이 다소 심화되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주인공이 호리키와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죄의 반의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가 죄의식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기>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우리의 일상적 개념인 '죄는 악하다'와 상이한 인

식을 보여주는 주인공의 발화로부터 이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 ③ 주인공이 '하느님에게는 사탄이라는 반의어가 있다'고 읊조리는 부분에서, 그가 적어도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로 할 말이 없다.
- ④ '기도', '회개', '고백'은 전부 절대자와 관련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죄'의 유의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의식에서, 자기 회복이 실패함을 선지의 전제부와 함께 추론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37] 마법진과 룬 문자

35. ①

[정답 해설]

① 발표 중간에 청중에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와 같이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비언어적 표현은 제시되지 않았고, 행동 변화를 말하지도 않았다.
- ③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 ④ 주요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
- ⑤ 청중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36. ②

[정답 해설]

② ㉡은 마법진 사용 방법을 시각화했지, 그 변화를 시각화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은 마법에서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마법진과 룬 문자가 사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그리스 지역과 북유럽에서 각각 기원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③ ㉢은 「악마군」의 묘사가 「파우스트」에서 비롯되었음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은 마법진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새로운 묘사가 등장했음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 ⑤ ㉤은 룬 문자가 일본권 창작물에서 사용되기 전 호빗과 서양권 TRPG에 먼저 사용되었음을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7. ④

[정답 해설]

④ 학생 2는 모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학생 1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발표자의 마법진과 룬 문자에 대한 미적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마법을 이해하는 작품이 더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솔로몬의 열쇠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3은 솔로몬의 열쇠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발표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38~42]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38. ④

[정답 해설]

④ (나)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상황으로, 발언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관계자 1은 항공사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발화가 이루어진다. 또, 관계자 1은 찬성측을 대표하고 있고, 관계자 2는 반대측을 대표하고 있다.
- ② (가)의 진행자는 직접 관계자 1과 관계자 2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나)에는 각각 발언을 요청하는 부분은 없다.
- ③ (나)는 비공개 상황의 대화이고, (가)는 공개 TV 프로그램이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화 주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발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39. ⑤

[정답 해설]

⑤ 학생 2의 패스트트랙 도입 찬성 입장과 학생 3의 패스트트랙 도입 반대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관계자 1이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단순히 예상된 것이 아니다.
- ②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았다.
- ③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견을

을 물어보고 있지도 않다.

④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맞지만, (가)를 보고 알게 된 것이지, 상대의 말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다.

40. ②

[정답 해설]

② 패스트트랙을 상위 클래스 좌석 구매자에게만 허락하고 항공사 우수 고객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학생 3'의 의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사한 하네다 공항의 사례는 (다)에서 필자의 의견을 보충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관계자 1'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공항의 사례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 ③ 패스트트랙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공항 이용료의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학생 2'의 의견은 (다)에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인천 공항의 우수성에 대한 '관계자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한 적이 없다.
- ⑤ 공항의 공공성에 대한 '관계자 2'의 말을 '학생 3'이 언급한 적이 없다.

41. ③

[정답 해설]

③ 패스트트랙 도입시의 장점은 한 가지만 언급되었다. 두 가지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인천 공항이 세계 3위 규모임이 언급되었고, 패스트트랙의 정의 역시 언급되었다.
- ② 패스트트랙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언급되었다.
- ④ 패스트트랙 사용 대상은 상위 클래스 좌석 구매자뿐임을 언급하였다.
- 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였다.

42. ①

[정답 해설]

① 문장의 흐름이 교체되거나 바뀐 지점은 없다.

[오답 해설]

- ② 첫 번째 문장을 (다)에서는 나눠서 제시되었다.
- ③ '공항의 공공성'을 예시를 들어가며 추가로 설명하였다.

- ④ 마지막 부분에 문단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 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로 수정하였다.

[43~45] 밴드 소개하는 글

43. ⑤

[정답 해설]

- ⑤ 밴드의 노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밴드의 역사를 언급하였다.
- ② 3문단에 밴드의 멤버와 그 역할을 언급하였다.
- ③ 2문단에 밴드의 음악 특징으로 ‘청춘문학 록’을 언급하였다.
- ④ 2문단에 섀광 라이엇 준우승이 언급되었다.

44. ③

[정답 해설]

- ③ 공연 당시 공연장의 문제로 공연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사과하고, 감사인사도 첫 문장에 전했다.

[오답 해설]

- ① 결속밴드를 소개하지도 않았고, 활동 계획도 언급하지 않았다.
- ②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④ 제시된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다.
- ⑤ 공연의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함께 들을 만한 노래도 언급되지 않았다.

45. ⑥

[정답 해설]

- ⑥ ㄱ과 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제 문학 작품을 인용한 곡이 사랑받고 있음을 추론해 낼 수 없다. 인기있다고 언급된 곡 「리프레인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아」는 문학 작품을 인용했다고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문학 작품을 인용했으므로, 청춘문학 록을 설명하기 적절한 주제이다.
- ② 중학생 시절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왔음을 드러낼 수 있다.
- ④ 일본의 밴드이므로 내한은 해외공연이다.

[언어와 매체]

[35~36] 조선어 신철자법

35. ⑤

[정답 해설]

- ⑤ 본문에 따르면 조선어 신철자법은 형태주의의 극단이다. 이 맥락에서 현행 표기법은 음소주의의 맥락을 따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예시를 스스로 들어가며 생각해 봐도 괜찮다.

[오답 해설]

- ① 현행 한글 맞춤법에 대한 부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 ② ‘늑다’의 발음은 [늑따]이다. 이를 ‘늑따’가 아니라 ‘늑다’로 적은 것은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③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법인 연철 표기는 전형적인 음소주의의 예시이다.
- ④ 본문 하단부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36. ③

[정답 해설]

- ③ 먼저 제시된 본문의 자료와 서술로부터 조선어 신철자법은 용언의 어간을 항상 같은 철자로 적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ㄷ불규칙(걷다)의 ㄷ은 ㅌ로 적는다.
- 2) ㅂ불규칙(춡다)의 ㅂ은 ㅍ로 적는다.
- 3) ㄹ불규칙(고르다)의 ㄹ은 ㄹ로 적는다.
- 4) ㅅ불규칙(붓다)의 ㅅ은 ㅆ로 적는다.
- 5) ㄹ탈락(살다)의 ㄹ은 ㄹ로 적는다.
- 6) ㅡ탈락하는 어간은 형태를 바꿔서 ㅏ와 같이 적는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었다.’에서 ‘잇다’와 ‘긋다’는 ‘이어’로 활용하는 ㅅ불규칙 용언이다. 2019년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문항을 변형했다.

[오답 해설]

- ① ‘물건을 실어 날랐다.’의 ‘실어’는 ‘실다’의 활용이고, ‘나르다’는 ㄹ불규칙 어간이다. 따라서 ㄹ이 아니라 ㄹ로 적어야 한다.
- ②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의 ‘알고’는 원래 ‘알다’인데, 이는 ‘아는 것은 힘이다’와 같이 ㄹ이 탈락하므로 ㄹ이 아닌 ㄹ으로 중성을 적어야 한다.
- ④ ‘나 대신 걸러 주어서 고맙다’의 ‘고맙다’는 ㅂ불

규칙 용언이므로 ㅂ으로 적어야 한다.

- ⑤ '뛰돌다'는 '뛰노는'과 같이 활용하는 ㄹ탈락 용언이므로 ㅂ이 아닌 ㅂ로 적어야 한다.

37. ③

[정답 해설]

- ③ (다)의 문장은 화자의 내면 심리가 아니라, 화자가 제3자의 내면 심리를 관찰하여 서술한 문장이다. 참고로 이 문항의 원본 문항은 2013학년도 임용고시 21번 문항이다.

[오답 해설]

- ① 서술격 조사 '이' 뒤의 어미 '-더'가 '-러'로 교체되는 것이 확인된다.
- ② 밑줄 부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인칭 평서문과 2인칭 의문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었다.
- ④ 문장 자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문장 자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38. ③

[정답 해설]

- ③ (다)의 안긴문장은 '동생이 산'이다. 따라서 (다)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한편, (마)의 경우 안긴문장은 '집에 가기'인데, 주어 '영희가'가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마)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2012년 임용고시 기출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나타나는 안긴문장은 '영희가 철수와 만났음'이다. 이는 명사절이며,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한다. (나)의 안긴문장은 '영희가 밥을 먹은'으로 관형절이며,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 ② (나)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하며, 생략된 문장성분은 없다. (다)의 안긴문장은 '동생이 산'인데, 이 경우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나)와 동일하나, 생략된 문장 성분 '책을'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 ④ (라)의 안긴문장은 '목이 쉬다'로 부사절이며, 이는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마)의 안긴문장은 '집에 가다'로 명사절이며,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⑤ (마)의 안긴문장은 '집에 가다'로 명사절이며,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바)의 안긴문장은 '밥을 먹다'로 명사절이며,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39. ⑤

[정답 해설]

- ⑤ '감'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그 자체로 <환경 1>에서의 '값'의 발음을 설명할 수 없다. 한편, <환경 3>의 경우 '감만'으로 말음되고, 같은 발음을 갖는 '짐' 역시 <환경 3>에서 '짐만'으로 발음되므로 <환경 3>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문항은 2017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기출을 변형했다.

[오답 해설]

- ① '값'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에서 동일한 받침을 가진 '집'의 발음 양상이 동일하므로 가정이 적절하다. 하지만 <환경 2>에서 '집'은 [지비]로 발음되므로 가정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 ② '값'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2>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 3>에서 '집만'은 [짐만]으로 발음되므로 <환경 3>은 잘 설명할 수 있다.
- ③ '값'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같은 받침의 '없'이 <환경 1>과 <환경 2>에서 각각 [업], [업씨]로 발음되므로 두 환경 모두 잘 설명됨을 알 수 있다.
- ④ '감'을 기본 형태로 가정하면, <환경 1>을 설명할 수 없다. <환경 2> 역시 '가미'와 같이 발음될 것이므로 <환경 2>도 설명할 수 없다.

[40~43] 로스트미디어

40. ⑤

[정답 해설]

- ⑤ 언급한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여 실제 노래를 재생하였다.
- ② 방송 제목 '김위키와 지식의 나무'가 상단에 제시되고 있다.
- ③ 방송 중 직접 '적절히 검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④ 그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41. ③

[정답 해설]

③ 투표하기 버튼이 있다고 해서 투표 후 선택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투표 창의 제목에 '투표:'가 명시되어 있다.
- ② 투표 기간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언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 ④ 두 선택지 각각에 체크 표시의 색을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맥락상 버튼을 누른 것을 진하게 표시했을 것이다.
- ⑤ '투표 없이 참여 결과 보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42. ④

[정답 해설]

④ '라는'은 인용격 조사 '라고'와 '하는'이 줄어든 준말이다. 인용격 조사는 '고'와 '라고'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문장 부사 '또'의 의미에 해당한다.
- ② 청유하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면 청유의 내용을 다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그것이 일어난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행한 주체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⑤ 보조 용언 '되다'의 기능 중 하나이다.

43. ③

[정답 해설]

③ '미카리'는 북괴 김정은의 남침이라는 방송과 무관한 채팅을 친 후 차단당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오댕이'가 언급한 내용이 오댕이 자신의 경험인지는 알 수 없다.
- ② '비둘기'는 진행자의 말에 반박하고 있지 않다.
- ④ '오리비'는 주관적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피머'는 방송 중 제시된 특정 낱선 표현을 질문하고 있다.

[44~45] 인천 국제공항 앱

44. ③

[정답 해설]

③ 수정하기 기능은 (나)에만 있고, (가)에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최신 출발 정보에 대해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생략된 정보(항공사의 이름 등)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의 최신 출발 정보 칸은 좌우로 화면을 넘겨가며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는 게시판이며, 사용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인쇄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45. ④

[정답 해설]

④ 이용자는 ㉔의 '출국장 위치 정보'를 생략해 달라는 의도를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정보를 표로 제시하면 의도한 정보가 생략될 수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이용자는 ㉑에 '인천 국제공항'이라는 텍스트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관리자는 이를 수락하고 있다.
- ② 이용자는 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㉒에서 보이는 정보의 종류를 공항 코드에서 실제 지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 관리자는 표 크기를 고려하여 ㉓에서 보이는 정보의 종류를 수정하지 않겠다며 이용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가 질문한 2터미널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㉔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